

카투사 격주간

1976년 6월 1일 창간

THE KATUSA, A BI-WEEKLY PUBLICATION

2004년 11월 두 번째 29권 20호

이번 호에는...

2면 군관련 소식

Veterans Day의 유래와 의미
불교명상강연회

3면 군관련 소식

군복무중인 쌍둥이 카투사
한마디

4, 5면 부대 탐방

2사단 공병여단 본부중대



6면 영어교육 연재

Winglish.com

7면 카투사 기고문

축구이야기

8면 안녕하세요

김아중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12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 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 50 회 미 육군 회의 및 박람회

미 8군 소속의 10마일 경주 선수 병사들을 비롯한 주한미군 병사들이 10월 25일부터 27일에 걸쳐 열리는 제 50회 미 육군 전체 회의 및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미국의 워싱턴DC를 방문하였다.

경주 참가자 중의 한 명인 18의무사 소속의 크리스티 마르티네즈 원사는 출발에 앞서 "미 8군을 대표하여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경주회 당일인 24일에는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경주에 참여하였고, 미 8군 소속의 선수들 역시 경기장을 직접 방문한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 리온 라포트 대장의 격려와 함께 경주에 참가하였다.

미 8군 팀은 남성팀 최종성적 합계 3시간 41분 45초, 여성팀 최종성적 합계 4시간 23분 25초를 기록하여 2등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에서는 이번 박람회를 위해 백선엽 예비역대장,

박정기 한미친선군민협의회 회장 등을 비롯한 고위층 인사들이 워싱턴을 방문하여 행사에 참여하였고, 박회장은 미 8군 참가선수 중에서 각각 남녀 최고 기록을 수립한 미국동공병단 소속의 새뮤얼 보크만 대위와 25수송대대 소속의 자넷 탐슨 대위에게 기념 명판을 증정하였다.

한편 백선엽 대장과 박정기 회장은 25일 워싱턴에 위치한 한국전쟁 기념관을 찾았다.

박회장은 "오늘의 한국전쟁기념관 방문은 정말 감동적인 경험이었다. 한국전쟁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친 미국 병사들의 정신은 한국에서 복



일병 신희석

지난 10월 14일 용산 메인 포스트의 한미 연합사령부에서 미 8군을 대표하여 미 육군 박람회의 10마일 경주 부문에 참가하는 병사들을 격려하고 있는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 리온 라포트 대장과 미 8군 사령관 찰스 캠벨 중장.

무하고 있는 군인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로 기억되고 있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올해의 카투사로 선정된 미 2사단 공병여단 44공병대대 82전투장비지원중대의 김윤근 병장 역시 부상으로 이번 행사에 초대되어 행사장을 방문하였다.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다시 부대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이번 미국 방문은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병 염태성



Pic. Michael Noggle/ Eighth Army PAO

10월 25일 워싱턴에 위치한 한국전쟁기념관을 찾은 (왼쪽부터) 주한미군 군수참모부 소속의 스티븐 앤더슨 대령, 백선엽 예비역 대장, 박정기 한미친선군민협의회 회장.



Pic. Michael Noggle/ Eighth Army PAO

워싱턴DC에 위치한 미 육군 박람회 행사장에서 미 8군 소속의 10마일 경주 참가팀 병사들과 포즈를 취한 김윤근 병장.



제공사진

수차례의 수상 경력을 지니고 있는 캠프 헨리의 20지역 지원단 식당이 미육군 본부 코넬리 대회에 참가하였다. 수백명의 미군들과 카투사를 포함한 한국군들에게 매일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이용길씨(사진)와 같은 한국 국적의 근무자들은 식당 업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Veterans Day, 무명의 영웅들을 기리며

매년 11월 11일 미국의 전국 각지에서 Veterans Day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 날은 우리나라의 '제향 군인의 날'과 같은 의미를 지닌 날로, 국가를 위해 몸을 바쳐 싸운 병사들의 공로를 기리고 그들을 추모하는 날이다.

지난 1921년, 한 무명의 미군용사가 워싱턴 시내와 포토맥 강이 내려다보이는 버지니아 언덕에 묻혔다. 이 세계 1차 대전에 참전한 무명용사의 알링턴 국립묘지 안장은 전 미국의 참전용사들에 대한 경외와 존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이전에도 영국과 프랑스의 무명용사들이 각 국가의 기념적인 장소에 안장되어졌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행사들과 함께 지난 1918년 11월 11일 오전 11시 세계 1차대전의 종결을 알리기 위해 이날은 정전의 날(Armistice Day)로 지정되었다.

정전의 날은 1926년 미국 국회의 결의를 통해 그 공식적인 명칭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12년 후에 또 한 차례의 국회 의결을 통해 국가 공휴일로 공인되었다.

세계 1차 대전 이후 또 다른 전쟁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11월 11일은 여전히 정전의 날로 불렸을 것이다. 하지만 1939년, 유럽에서의 세계 2차 대전 발발로 인해 그 날은 '정전의 날'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한편 알라바마 버밍햄의 레이몬드 워스라는 전직 군인은 모든 미군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1947년 11월 11일 시가행진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

어 미국 하원의원 에드워드 리즈가 이 날의 명칭을 Armistice Day에서 Veterans Day로 개명하여 여러 전쟁에 참가하였던 모든 미군들을 추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침내 1954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11월 11일을 Veterans Day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공식적인 Veterans Day, 즉 '참전 용사의 날'이 지정된 것이다.

한편 지난 11월 11일, 용산에 위치한 전쟁 기념관에서는 Veterans Day를 맞아 전쟁에서 숨져 간 병사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미8군 사령관 찰스 캠펠 중장과 트로이 웰치 미8군 주임원사 이하 한미 전현직 주요 군 간부들이 참여하여

이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2지역대 KORO(Korean Regional Office) 시각정보지원부 소속의 윌리엄 굿 일병은 "오늘 행사를 통해서 평화를 위해 열심히 싸워준 선임들의 뜻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들의 정



Pfc. Michael Noggle/ Eighth Army PAO

지난 11일 용산기지 메인 포스트의 참전용사 기념비 앞에서 Veterans Day를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사진은 꽃다발 증정식 후에 유엔사 의장대와 연합사 의장대 소속의 병사들이 퇴장하는 모습.

신을 본받아 우리도 열심히 근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일병 신희석

한 서양 불교신자의 한국 불교 수양에 대한 견해

***불교 명상 강연회가 용산 미군 기지에서 열립니다. 벤 '무심' 스님이 서양인의 관점에서 본 한국 불교와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날짜: 2004년 11월 23일 화요일 16:00~18:00

장소: 용산 메인 포스트 버스 터미널 내 Area Community Theater 101호

출입 게이트: 5번 게이트

행사 관리자: Mr. Cho 011-224-9980

DSN 723-7001

Ms. Lee 017-269-8083

*강사 소개

벤 '무심' 스님은 미국에서 태어나 기독교도 가정에서 자라고 보스턴 대학을 졸업하였다. 1986년 한국 조계종의 수도승으로 입문하였다. 선종의 승산 스님이 그의 스승이었다. 현재는 계룡산 국제 선원 무상사 주지스님이자 대수도원장이다. 그는 여러 한국 사찰에서의 선종 수양 경력이 있고, 불교 서적 '공안'을 'The whole world is single flower'라는 영어책으로 번역, 출간하였다.

*후원

한국 조계종 선교 사무국

연합사 장교 불교 협회

국제 포교 사회

*강연회 후 저녁 식사 제공

카투사 신문은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공인 미국방성 공인 신문으로, 1회 4,000부씩 월 2회 발행되고 있다.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국 정부, 국방성, 육군성, 미8군이나 대한민국 육군의 그것은 아니다. 카투사 신문은 격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된다. 사무실은 용산 미8군 부대내 C-2330B이며 전화번호는 723-6460/3134/4681이다. 모든 글은 용산구 채신정 직영 우체국 사서함 59호 미8군 본부중대 공보실로 보내면 된다. 전자우편 주소는 kimtaek@usfk.korea.army.mil이다.

미8군 사령관
 중장 찰스 씨 캠펠
 한국군지원단장
 대령 김덕곤
 미8군 공보실장
 중령 토마스 이 버지나
 한국군지원단 정훈과장
 대위 이세희
 편집장
 상병 김택현
 기자
 상병 염태성
 일병 신희석
 일병 김도호
 일병 최의진



Eighth U.S. Army Commander
 Lt. Gen. Charles C. Campbell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Lt. Col. Thomas E. Budzyna
 Command Information OIC
 Capt. Kone C. Faulkner
 Editor
 Cpl. Kim, Taek-hyun
 Staff Writers
 Cpl. Yum, Tae-sung
 Pfc. Shin, Hee-suk
 Pfc. Kim, Do-ho
 Pfc. Choi, Eui-jin
 Special Assistant
 Mr. In, Pu-hyun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the Army, Eighth U.S. Army, or Republic of Korea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4,0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Bldg. C-2330B,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6460/3134/4681.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kimtaek@usfk.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 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해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관련 소식 외에도, 전국의 모든 카투사들과 공유하고 싶은 멋진 추억이나 아름다운 이야기, 전하고 싶은 글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전화: DSN 723-6460

E-mail: kimtaek@usfk.korea.army.mil

용산에서 복무중인 카투사 쌍둥이들

올해 카투사 선발인원 중 두 쌍의 쌍둥이 형제가 용산 기지에 배치되어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04-06기의 8군본사 인사참모부 행정실 보급병 김세호 일병, 제1통신여단 41통신대대 본부중대 화학병 김세중 일병 형제와 04-10기의 18의무사 618 치과중대본부 운전병 김영범 이병, 제8인사행정사령부 516인사대대 제1신병보충대 소속 김영서 이병 형제가 그들이다.

처음 카투사에 지원할 때 서로 동시에 붙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김세호 일병은 "한창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고, 더 이상 군 입대를 미룰 수도 없는 나이여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카투사로 지원하게 되었고, 원래는 화학 특기병으로 지원하려던 형도 내가 강력히 권유한 끝에 같이 지원하게 되었다"고 형제의 카투사 지원동기를 말했다.

형제가 동시에 합격한 사실을 알았을 때 김영범 이병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너무 좋았다. 부모님들께서 일단 많이 좋아하셨고, 주위사람들이 처음엔 부러워 믿으려 하지 않을 정도로 행운이 따른 것이라 우리 형제도 매우 기뻐했다"고 당시 소감을 말했다.

그러나 비록 카투사로 군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같은 부대에서 생활하는 일은 정말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며 입소

대에 들어가면서 슬픈 작별인사를 나누는 김세중 일병, 김세호 일병 형제에게는 또 다른 행운이 찾아왔다. "입소대에서 감기 걸린 사람을 뽑기에 손을 들었는데, 감기소대에서 형을 다시 만났다. 논산 훈련소에 들어가서도 같은 소대 79번, 80번 훈련병으로서 바로 옆에서 붙어서 지내게 되었고, 카투사 교육대에서도 역시 118번, 119번 교육병으로서 바로 붙은 번호를 받아 방마저 같이 쓰게 되었다"고 행운이 계속된 훈련병 생활을 말했다.

입소하는 날부터 전입하기 전까지 언제나 붙어 다녔다는 김영범 이병, 김영서 이병 형제도 역시 같은 행운이 따랐다. 김영범 이병은 "생년월일도 같고, 이름으로 순서를 정해도 바로 앞뒤이고, 키도 같아 언제나 옆자리에 배치되어, 입소대, 훈련소, 카투사 교육대까지 다 같은 내무실, 방에서 생활하였다"고 밝히며 "말동무도 되고 아플 때 서로 챙겨줄 수도 있어서 많은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같은 용산지역대에서 부대생활을 하니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이 있었다고 한다. 김세호 일병은 "한번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번호를 확인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왜 밥을 두 번 먹느냐며 못 들어가게 하신 적도 있었다"고 말했고, 또 "선임병들은 왜 자기를



카투사 신문 최의진

같은 용산지역대에서 근무하게 된 18의무사 618치과중대본부 운전병 김영범 이병(오른쪽)과 제8인사행정사령부 516 인사대대 제1신병보충대 김영서 이병(왼쪽) 쌍둥이 형제의 모습.

봤는데 못 본 척 했느냐며 묻는 적도 있었고, 후임들도 형에게 인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등 재밌는 일화를 털어 놓았다. 또 김영범 이병, 김영서 이병 형제도 PT점수가 한점차로 비슷하고 사격 점수도 2발차로 거의 흡사한 등 쌍둥이라서 군대생활도 닮은 점이 많으며 재미 있어했다.

이제 군생활을 시작한 두 쌍둥이 형제는 같은 지역대에서 생활하게 된 것에 감사해하며, 서로 도와가며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자신들의 각오를 밝혔다.

일병 최의진

카투사 한마디

기억에 남는 훈련



미2사단 공병여단 본부중대 병장 이승호

작년 1월말 혹한기 훈련때의 일입니다. 갓 상병으로 진급하고 나간 훈련에서 수류탄을 주제로 교육시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살을 예는 주위로 손과 입이 얼어 붙어서 교육 진행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올 겨울에는 전역을 하기 때문에 훈련에 참여를 못하겠지만, 후임병들이여 올 겨울도 건투를 빕니다!



미2사단 공병여단 본부중대 상병 안홍근

일병을 막 달았을 때 나갔던 혹한기 훈련에서 모든 중대원을 앞에서 NBC 교육을 한 기억이 납니다. 다른 부사관이 없어서 일병인 제가 하사자리를 맡아 교육을 하면서 느낀점이 많습니다. 언어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때의 경험이 지금 NCO로서의 리더쉽을 배울 수 있었던 발판이 되었습니다.



미2사단 공병여단 본부중대 상병 강정식

작년 여름에 훈련을 나갔을 때에는 근무시간을 밤으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생활패턴이 바뀌어 밤에는 근무를 하고 낮에 잠을 자야 했었는데, 텐트 안이 생각보다 너무 더웠습니다. 서너시간을 뒤척이며 매우 힘들게 잠을 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2사단 공병여단 본부중대 병장 강정헌

겨울에 혹한기 훈련을 가서 새벽에 교대로 근무를 썼을 때였습니다. 교대하기 위해 옷을 추스려 입고 나갔는데,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교대하는 곳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목을 졸라 오는 것입니다. 알고보니 텐트줄에 목이 걸려 버린 것이었습니다. 선임병장의 그런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까봐 창피해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2사단 공병여단 본부중대

맑고 푸른 가을 하늘아래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던 11월, 기자는 캠프 케이시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취재 요청을 승낙 받은 후부터 계속 지남 기억을 떠올리니 절로 웃음이 나왔다. 카투사 교육대 시절 교육병들 누구나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던 2사단 부대로 취재를 가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겁부터 먹었던 2사단은 어떤 곳일지 직접 확인하러 가는 길은 설렘 수밖에 없었고, 버스는 어느새 캠프 레드 클라우드를 거쳐 목적지에 도착했다. 캠프 케이시는 기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캠프였고 힘찬 구호와 함께 경례하는 정문 경비병은 2사단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 했다.

기본적인 공병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2사단 공병여단의 임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아군의 기동을 방해하는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철조망, 차량이동 장애물 등 각종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부교를 설치하는 도하작전을 통해 아군의 이동을 돕는 것이 하나이고, 반대로 각종 장애물을 설치하여 적군의 이동을 저지하는 것이 다른 하나이며, 마지막으로 각종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는 임무가 있다. 2사단 공병여단 본부중대 강정현 중대선임병장에 따르면 본부중대에서 차지하는 카투사들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한다. 강병장은 "본부중대는 카투사에게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사실 전투부대 같은 경우 종종 카투사들이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해 본부중대의 경우 행정병이 대부분이고 인원수도 카투사가 미군보다 비슷하거나 많다. 그래서 부대 소개에 나오는 카투사

의 '중추적인 역할'이라는 부분이 본부중대에서는 말 그대로 행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정업무에 관해 미측 장교들과 함께 많은 일을 하는 본부중대원들에 따르면 장교들이 업무인원을 관리, 지휘 및 통제하지만 구체적인 업무는 카투사들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사단 공병여단 본부중대는 현재까지도 병력과 부대물품 이동이 한창이다. 2사단 2여단 병력이 이라크로 재배치된 후 2사단 전체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 본부중대는 예전의 캠프 하우스에서 이곳 캠프 케이시로 주둔지를 옮기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본부중대 인사과 이승호 선임병장은 "캠프 하우스는 본부중대원들만을 위한 캠프였는데 캠프 케이시는 큰 부대다보니 이곳 일정에 중대원들이 맞춰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사람이 많다보니 부대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좀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없던 부대시설이 이곳엔 많아서 좋고 모든 것이 새롭다"며 새로 적응하게 될 부대에 관한 소감을 밝혔다. 또 이병장은 "캠프 하우스에서는 막사와 식당 사이 거리가 멀었고, 산이나 언덕이 많아서 운동을 하거나 이동할 때 등 불편한점이 많았는데 이곳 캠프 케이시는 언덕이 없고 주로 평지다보니 그런 불편함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작전과 소속 강정식 상병은 본부중대는 타 부대가 부럽지 않게 부대원들 간의 돈독한 우정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한다. "작전과에서는 일하는 카투사가 소수이고 미군측 사병들이 많기 때문에 그

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습니다. 작전과가 중대내의 다른 섹션에 비교하여 훈련이 많은 편인데, 훈련을 다녀오면 바비큐 파티 등을 항상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카투사 가족행사 때에는 여단장이 카투사 가족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같이 하고 카투사들을 칭찬하였습니다. 그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고 설명할 때에는 카투사로서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밖에 2사단에서는 워리어 올림픽이 매년 가을에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다. 2사단 내 카투사들과 미



제공사진

군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된 이 행사에는 축구, 농구, 씨름, 줄다리기 등을 포함하여 2사단만의 특별한 도끼던지기 같은 여러 종목이 있다. 운동과는 별도로 응원전도 갖춰져 있는데 각 팀마다 티셔츠를 맞춰 입고 민간인 치어리더들을 각 부대가 초청하여 부대마다 특색 있는 응원을 선보이고 시상도 한다.

최근에는 본부중대 화생방실 소속 안홍근 상병이 백선엽 장군 보드대회에서 수상하여 부대의 자랑이 되었다.

"백선엽 장군 보드대회는 부대 내에서 근래에 간 사람이 없는 관계로 자료도 부족하고 정보도 없어서 수상의 기대를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대급, 여단급 대회를 치르기 위해 준비하다보니 주위에서 많이 도와줘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 이는 혼자 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위로부터 도움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회를 위해 대부분의





카투사 신문 김도호



제공사진

고 부사관들이 하지 못하는 많은 공백을 채워주고 있다. 여러 섹션이 그들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통역의 역할 또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강병장에 의하면 처음에 본부중대로 신병들이 전입하면 PT 점수가 낮은 인원도 있고, 영어 실력이 부족한 인원들도 있다고 한다.

"운동 같은 경우 매일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쉬어가며 해야 근육이 회복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운동을 하다보면 실력이 늘게 됩니다. 중대원들은 무조건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분위기로 전투체육과 같은 여가활동을 할 때 개인여가활동을 위해 혼자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말로만 단결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보일 수 있도록, 모두 단합하여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부대 이동으로 행해지지 않고 있지만 선임병장들의 주축 하에 중대원의 영어교육도 행해졌다고 한다. 강병장은 "회화에는 다들 약하다 보니 서로 연습하려 노력하고 PT나 사격도 비중이 커서 일주일에 몇 회 주기적으로 운동을 했었다. 그러다 보니 평균 PT 점수가 260이 넘고 280~290인 사람도 많다"고 전했다.

강병장은 역대 선임병장을 보며 지켜왔던 좋은 전통 같은 것은 유지를 하되,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가차 없이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군인의 모습을 지향하고자 하는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 미군들과 함께 일하면서 느끼는 점들을 강병장은 솔직하게 말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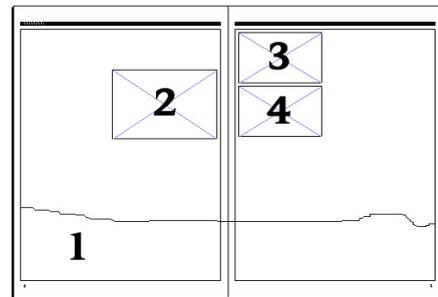
"미군들과 카투사 양측의 소리를 모두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임무수행을 우선시하면서 카투사들의 불이익을 막는데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군대이고 윗사람이 시키면 당연히 무조건 해야 한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면 저를 통해서 미측과 이야기를 하고 많이 조정해나가는 편입니다. 그러다보니 미군들과 다투는 경우도 좀 있고, 카투사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간에서 다리역할을 한다는 것이 많이 힘든 것 같

습니다."

중대원들은 교육병 시절 흔히 생각해왔던 2사단 전투병에 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상병은 "2사단 미군들에 대한 생각은 전투부대에서 일하는 미군들은 약간 거친 면이 있기도 하지만 본성 자체가 나쁘다거나 이상한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 거칠다보니 카투사들에게 있어 조금 거칠게 느껴지는 사람은 몇몇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일을 하다가 사소한 말다툼 정도는 몇 번 있었지만 미군들은 전날 옥하고 싸웠다가도 다음날은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는다. 이렇듯 의견충돌이 있던 그때그때만 기분이 나쁠 뿐 다들 불임성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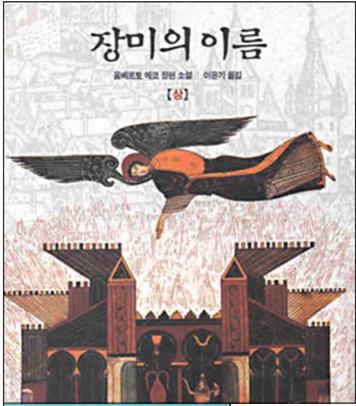
중대원 개개인이 자신의 임무에 적극적이고, 역할을 인정받고자 누구보다 노력하는 공병여단 본부중대원들의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취재 중에 진행되었던 물품 운송작업에서도 보였듯이 자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함께 일하는 그들의 자세는 모든 군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전우애의 표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2사단 중 일부 병력이 이라크로 재배치되어 병력 이동과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취재에 적극 협조해준 본부중대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일병 김도호



1. 앞으로 부대원들이 생활하게 될 캠프 케이스의 가을 전경.
2. 지난 6월초 한미연합 도하훈련(HANEX)을 하고 있는 공병여단 2공병대대 50 부교중대원들과 국군311도하대대.
3. 이사를 위해 포장된 짐을 나르고 있는 본부중대 작전과 강정식 상병과 타일러 메이랜드대 이비스 일병.
4. 10월에 있었던 백선엽장군리더십상 수상후 포즈를 취한 안흥근 상병과 중대원 일동.





BESTSELLER

장미의 이름

움베르토 에코 / 열린책들

현대의 가장 저명한 기호학자이며, 동시에 뛰어난 철학자, 역사학자, 미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영국의 수도사 윌리엄은 모종의 임무를 띠고 이탈리아의 어느 수도원에 잠입한다. 이날부터 수도원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연쇄 살인이 묵시록에 예언된 내용대로 벌어진다.



WEBSITE

콩나물닷컴

www.congnamul.com

전국의 지도 및 상세한 건물 정보까지 알 수 있는 사이트. 친구에게 약속 장소의 약도를 핸드폰으로 보내는 맵폰 서비스, 가고자 하는 최단경로를 지도상에 보여주는 길 찾기 서비스, 출발지와 목적지를 지도상에 선택하면 최적의 버스노선을 보여주는 대중교통 서비스 등 지도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편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English Talk N' Talk

제 4 장

*** 유제품은 어디 있어요?**
슈퍼마켓에 가면 '우유나 치즈' 등 유제품을 파는 곳이 있지요. 그와 관련된 연습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영어로는?
What aisle are dairy products in? 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합니다.
주제연구) '슈퍼마켓'의 물건을 쌓아 놓는 곳 뿐만 아니라 좁은 통로도 영어로 aisle 이라고 합니다.

대화를 보며 연습합니다.
A: What aisle are dairy products in?
B: They're in aisle four beside the pasta.
A: Thanks. And what about the produce section?
B: That's beside the dairy products.
번역)
A: 유제품은 어느 코너에 있나요?
B: 파스타 옆 4번 코너에 있습니다.
A: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은 어디에 있죠?
B: 유제품 옆에 있습니다.

*** 기대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전근 발령을 받으면 그 지역에 대한 궁금증이나 호기심으로 긴장되고 흥분이 됩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의 표현을 영어로는?
I am very excited about it. 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주제연구) 여기서 말하는 'be excited' 라는 표현은 '기대감과 약간의 초조감으로 인해서 흥분된다'라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대화를 봅시다.
A: How do you feel about being transferred to the Singapore branch?
B: I am very excited about it.
A: Do you know anything about Singapore?
B: Not really, but I've been there three or four times as a tourist.
번역)
A: 싱가포르 지사로 전근 가는 것에 대해 느낌이 어때요?
B: 정말 흥분되고 기대되요.
A: 싱가포르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요?
B: 별로요, 하지만 관광 차 3번인가 4번 가 봤어요.

***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여기에 안 계시는데요.**
회사에 전화를 잘못 걸었을 때 상대방이 '그런 분 안 계시는데요'라고 말을 하죠. 오늘은 그런 상황에 대한 연습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영어로는?
Sorry but there is no one here by that name. 이라고 하면 되죠.
주제연구) '그런 이름' 이라고 할 때는 that name 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 조금 더 연습합니다.
A: Can I speak with Mr. Legardo?
B: Sorry but there is no one here by that name.
A: Isn't this New Roman Trading?
B: I think you have the wrong number.
번역)
A: Legardo 씨 좀 바꿔 주시겠습니까?
B: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여기 안 계시는데요.
A: 거기 New Roman Trading 사 아닌가요?
B: 전화를 잘못 거신 것 같습니다.

*** 난 그 일이 다음 주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일상생활 또는 business 생활을 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지요. 오늘의 주제를 영어로는?
I thought it would be next week.
주제연구) 종종 이 표현을 I thought it would be in next week. 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In next week 이 아니라 next week 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대화를 통해 조금 더 연습합니다.
A: Veronica, could you tell me about my afternoon schedule?
B: Sure, Mr. Wilkins. You have a business meeting with Mr. Yosida about the Tokyo project.
A: Is that today? My goodness. I thought it would be next week.
B: Yes, it will be today at 3:00 p. m.
번역)
A: 베로니카, 오후 스케줄에 대해서 말해 줄래요?
B: 물론이죠, 윌킨스 씨. 요시다 씨와 도쿄 기획안에 대해 미팅이 있으신대요.
A: 그게 오늘이예요? 저런! 나는 그게 다음주라고 생각했어요.
B: 네, 오늘 오후 3시입니다.



* 다음 주에 며칠 휴가를 얻고 싶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며칠 정도 휴가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많겠죠?)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영어로는? Can I take a few days off next week? 이라고 하면 됩니다.
주제연구) 일반적으로 '하루 휴가'를 영어로는 a day off 라고 합니다. a few days off 는 '며칠간의 휴가' 겠죠?

대화를 통해 조금 더 연습합니다.
A: Can I take a few days off next week?
B: Can I ask you why?
A: I have to take my grandmother home in San Jose.
B: Okay, but will you please try to look for someone who can cover for you?
번역)
A: 다음 주에 며칠 휴가를 내고 싶은데요.

*** 저 사람 몇 살쯤 돼 보이니?**
이런 표현도 정말 자주 쓰죠? 익혀두시면 유용하게 쓰이겠죠?
오늘의 주제를 영어로는?
Can you guess his age?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주제연구) native speaker들이 느닷없이 Guess what? 이라고 하면 "너 그거 알아?" 또는 "있잖아,"처럼 대화를 시작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대화를 통해 연습합니다.
A: Can you guess his age?
B: Who are you talking about?
A: The man beside Tina.
B: I am not sure, around mid-thirties?
번역)
A: 저 사람 몇 살쯤 돼 보이니?
B: 누구 말하는 거야?
A: 티나 옆에 있는 남자.
B: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30대 중반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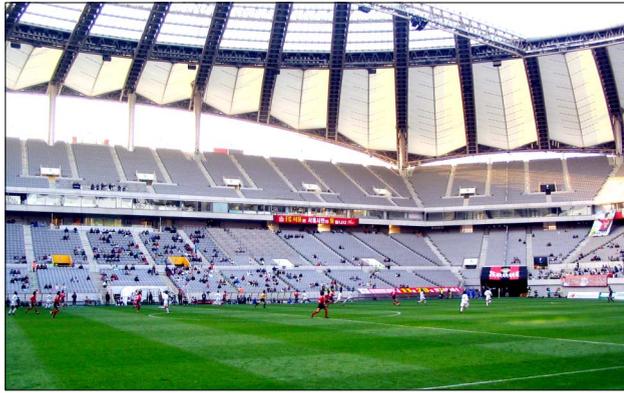
■ 카투사 기고문

문병장의 SoccerMania

-K 리그 구단들이 적자인 이유



제공사진



제공사진

지난 11월 7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FC서울과 부천SK의 경기가 있었다. 한창 경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관중석에는 많은 빈자리가 보인다.

최근 K 리그 경기장을 찾는 대다수의 축구팬들은 항상 허탈함을 느끼곤 한다. 텅텅 비어 있는 관중석에는 자신들의 팀을 응원하고 있는 몇 십 명의 서포터즈들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축구팬들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분위기를 즐기려는 사람과 경기를 보러 온 사람이 그것이다. 얼핏 들으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문을 품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 이를 엄연히 다른 성격의 팬들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전자의 경우는, 축구장의 열띤 응원과 짝 들어찬 관중석의 열기 그리고 덤으로 멋진 경기를 즐기러 온 사람들이다. 즉,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 못하는 새로운 기분을 창출하러 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이들은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전체적인 선수들의 플레이를 꼼꼼히 살피고, 리그 시스템에 맞는 정보들을 파악하여 순위경쟁이라든가 혹은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선수에 대한 활약도를 체크하러 오는 사람들이다. 즉, 축구마니아층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축구팬들은 대부분 지역 연고팀을 기점으로 해서 축구마니아층 10% + 그저 즐기는 층 90%로 구성되어 있다.

그저 즐기는 층, 즉 오락성만을 중요시하는 이 부류는 축구에 조금만 흥미를 잃어도 경기장을 찾지 않는, 유통적인 축구관람층이다. 우리나라 축구팬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이들은 현재 평균 관중이 9000여명 밖에 안 되는 K리그의 슬픈 현실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 말은 곧 소수의 축구마니아 10%정도만이 K리그의 존재 가치를 겨우 입증해주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유럽처럼 자신이 살고 있는 연고팀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고장의 축구를 찾아주지 않을까? 이는 구단들이 지역 축구팬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축구팬들이 생겨나려면 그 해당 지역의 팀은 시민이나 도민들에게 무엇인가 행사나 봉사를 통해서 다가가야 한다. 팬들은 구단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관심을 받기를 바란다. 구단이 날 찾아주면 나 또한 그들을 찾아주겠다는 것이 이들의 일반적인 논리이다.

현재 많은 K 리그 팀들은 자신들의 구단 유지조차 힘든 경우가 많다. 자신들의 코가 석자인데, 팬들까지 돌볼 여유는 없다는 핑계다. 그렇게 하면 평생 축구팬들은 어디에 살더라도 자신들의 연고팀을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멋진 경기장과 선수들을 아무리 준비해놓고 기다려도 축구팬들은 외면하고 말 것이다.

일본의 J리그가 출범 당시 축구팬들을 경기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던 노력이 바로 많은 시민들을 향한 이벤트 창출이었다. 각 구단들은 시민들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실제로 해당

을 구입하고 이용하게 만든다.

우리 국내 구단들은 연고 시민들에게 철저히 무관심하면서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다. 축구팬들은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나 자신만 봐도 그렇다. 축구 마니아가 아니었다면 구태여 내 고장에 관심도 안 가지고, 축구장에서 죽치고 기다리고 있는 연고팀의 경기는 찾아줄 생각조차 안 했을 것이다.

축구 사랑은 깊고 깊은 뿌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뿌리는 시민들에게 서서히 사랑을 주면서 정착해야 한다. 만성 적자에 시달린다, 축구팬들이 축구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이것은 축구팬들이 문제라는 식의 무차별한 논리일 뿐이다.

'그들만의 리그', 이는 K 리그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 말은 축구팬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알아서 저절로 황금알을 낳기를 바라는 구단들의 잘못된 정신에서 생겨난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원삼성 블루윙즈 구단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고아원 방문을 비롯한 많은 사회 복지 사업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뿌리 내린 결과 수원 삼성은 '그랑블루'라는 거대한 시민 서포터즈를 갖게 되었고, 현재의 축구 불황에도 불구하고 1만 명이 넘는 고정적인 축구팬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요건들이 바로 실력으로 직결되면서, K 리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단이 되어가고 있다. 아직은 미비하지만 그러한 작은 노력들이 결실로 맺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안준다고 욕하지 마라. 해주고 나서 못 받으면 욕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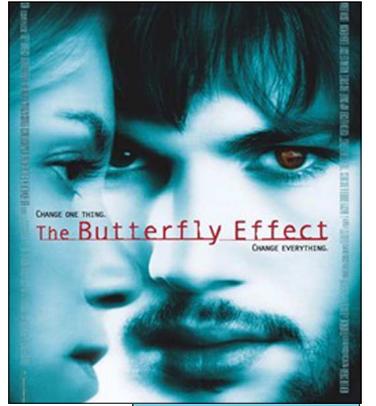
K 리그 구단들은 정말 진심으로 발전하고 싶다면, 불평불만을 할 때가 아니라 자신들의 해당 연고 시민들과 도민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축구팬들은 이기적이다... ■

미 8군 공병참모부 병장 문인성



지역에 축구 박물관 설립, 언론매체를 통한 끊임없는 홍보, 꿈나무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제도, 기타 사회 복지사업, 축구 문화를 창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축구 관련 문화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한마디로 그저 받으려고만 하는 우리 국내 구단들과는 달리 '주는' 정신에 충실했던 것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원칙에 철저하게 입각했다는 결론이다.

생각해보자. 도대체 축구팀이란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팬들을 위해 많은 것을 주고 축구팬들로부터 많은 상업적인 관심을 받게 되는 쌍방향 기업이다. 국내 유수의 기업들을 보라. 그들은 고객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상품을 사 달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좋은 기업 이미지와 서비스, 그리고 많은 사회 발전적인 투자 등을 통해서 고객들을 감동시키고 고객들로 하여금 그들의 상품



MOVIE

나비효과

감독: 에릭 브라스, 맥키 그루버

주연: 애쉬튼 커처

끔찍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지닌 에반은 예전의 일기를 꺼내 읽다가 일기장을 통해 시공간 이동의 통로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미치도록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 첫 사랑 켈리와와의 불행했던 과거들을 고쳐 나간다. 그러나 과거를 바꿀수록 현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불행으로 치닫는데... 과연 그는 과거를 바꿔 그가 원하는 현재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TOP CHARTS

It's Raining

비

2. 월릴리 / 이수영
3. 기억상실 / 거미
4. 불치병 / 휘성
5. 문신 / 세븐
6. 하하하송 / 자우림
7. 심장병 / 이승환
8. 흑백사진 / KCM
9. 무정 / 이승철
10. 너에게로 또다시 / 서영은
11. 고래의 꿈 / Bobby Kim
12. 하루가 지나고 / JNC
13. 사람찾기 / 유리상자



요즘 인터넷에서 가장 핫이슈가 되고있는 신인 연기자 김아중씨와 도산공원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입동이 지나고 겨울이 물씬 느껴지는 날씨였지만, 늦가을의 햇빛이 공원을 포근하게 만들어 주어 좋은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최근 쇼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여러 인기 연예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녀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머지않아 여러 작품에서 활약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김아중입니다. 공원에 나오니까 추운데도 햇빛이 따뜻해서 기분이 매우 좋고요, 사실 카투사신문이 있는지 몰랐는데 뵈게 되서 반갑습니다.

-데뷔하게된 계기

데뷔는 98년도에 모델활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잡지모델로 시작했었는데 중간에 음반준비를 하다가 잘안되는 바람에 영상데뷔가 늦어진 것이구요. 사실 길거리캐스팅으로 데뷔하게 되었지만 어렸을때부터 배우가 되는게 꿈이어서 만약 캐스팅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제 발로 찾아가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성격

제 성격은 약간 양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적일때는 남들이 잘 몰라서 하는 말인지 양전하다, 내성적이다 라고 말할 하는데 어쩔때는 '굉장히 터프하다, 너가 내성적인건 말도 안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따라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A형의 전형적인 성격이지요.

-최근 쇼 프로그램에서 많은 인기 연예인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자신의 이상형은?

타 신문에서 '비씨는 원래부터 내 이상형이었다, 내 이상형 측에도 못간다' 등등 내용이 다른 기사들이 나오면서 안티팬도 많이 생기고 혼란스러웠어요. 그건 기사들은 기자분들이 재미를 덧붙이기 위해서 쓰신 것 같습니다. 제 이상형이라고 하면 저는 말투를 봐요. 말투나 목소리가 꼭 중저음이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목소리였으면 좋겠고 말투가 단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로서 가장 맡고 싶은 배역

지금 현재 제가 배역을 가릴 입장은 아니에요, 신인이기 때문에 제가 작품에 도움이 되는 배우라기 보다는 작품이 제 이력에 도움이 되는 때이기 때문에 가리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도 기왕 꼭 말하라고 하면 좀 독특한 연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악역이라기 보다는 좀 이중적이라고 하거나 사이코틱한 배역이요.

-요즘 한참 주목받는 신인으로서의 목표

제가 이 예능 프롤 하면서 이름을 많이 알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아무것도 한것이 없어요. 영화 '어깨동무'를 찍었기는 하지만 흥행에는 실패를 해서 많은 분들이 보지도 못했고 만약 이 러브 서바이벌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좋은 작품을 만나서 하루라도 빨리 연기력으로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군인이 멋있어 보일때

저는 군복도 군복이지만 군인분들이 편지 쓰시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애인이면 애인, 어머니면 어머니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요. 그게 여성스럽다기보다 섬세해 보여서요.

-카투사에게 한마디

카투사분들에게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른 군인 분들이 저를 욕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유난히 카투사분들이 멋있어 보입니다. 항상 품위있는 군인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병 신희석

김아중



스타를 사로잡은 매력